



보도 일시	2022. 12. 20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2. 19.(월)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지영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찬웅 (044-201-6762)

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...범정부 협력

- 부처 간 관련 연구개발 성과 연계·활용 및 협력 추진 -
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'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'를 출범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에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* 합동으로 수립된 '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'의 후속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.

* 환경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농촌진흥청

□ 그간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·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△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, △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.

○ 세정제,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'의도적 미세플라스틱'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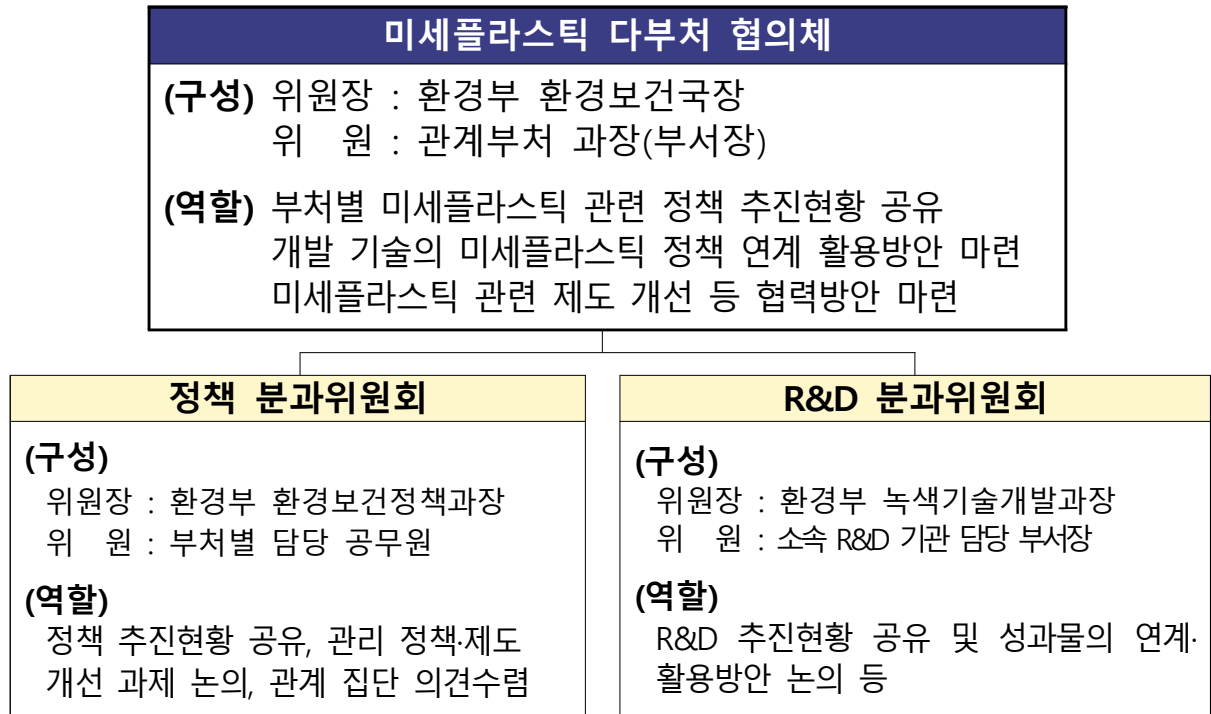
○ 하지만 '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'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,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여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.

○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.

-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(R&D) 성과를 연계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한 것이다.
- 다부처 협의체(위원장 환경부 환경보건국장)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(R&D)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.
-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,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.
- 또한 연구개발(R&D)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.
-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”라면서, “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하여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운영·구성(안)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지영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찬웅 (044-201-6762)
담당 부서	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명환 (044-201-6660)
		담당자	사무관	황의석 (044-201-6663)



- **(목적)** 부처별 R&D 성과물을 바탕으로 소관 정책과 제도를 연계하여 미세플라스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
- **(운영)** 상반기는 전년도 추진성과, 하반기는 차년도 계획 논의

<환경부 미세플라스틱 관련 사업 현황>

- **(현황 조사)**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
 - 환경 매체별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 및 거동 조사('22.~'25.)
 - 의도적·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 발생원별 배출량 산정('22.~'25.)
 - 실태조사와 연계해 매체별 측정·분석법 표준화 및 검증('22.~'25.)
- **(기술개발)**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술 확보 사업
 -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사업('20.~'24.)